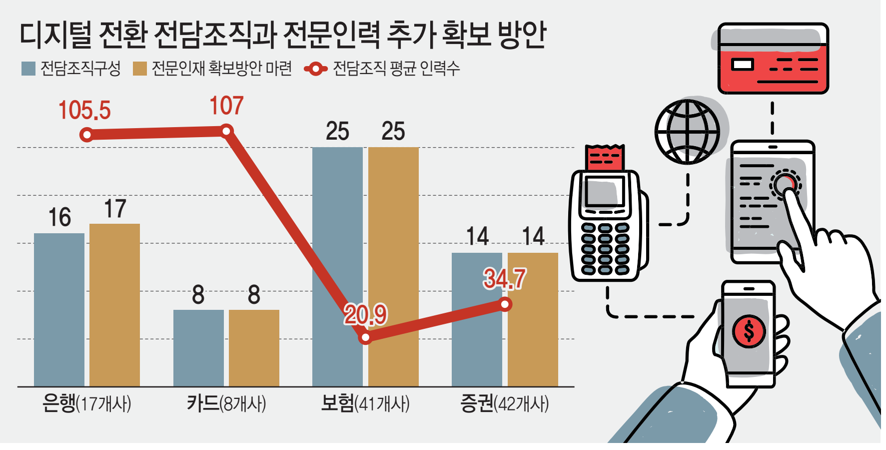
금융권 '디지털 전환' 올인… 올해 5845억 푼다

금융사 71% 디지털 전환 추진 계획
전담 조직 설치하고 해외인재 채용
평균 예산 82억, 인력 56.4명 배치
AI 가장 많고 RPA > 빅데이터 順



금융권이 디지털 전환에서 한 발 앞서기 위한 경쟁으로 뜨겁다.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물론 관련 해외 석·박사를 채용하고, 외부 인재 영입에도 나섰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중 금융사 108개사 중 71개사(65.7%)가 총 164건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배정된 예산은 총 5844억8000만원으로 회사당 평균 82억3000만원 규모다.

권역별로는 은행과 카드사가 일제히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보험사 가운데서는 78%인 32개사가 디지털 전환 사업에 나섰고, 증권사는 33.33%인 14개사 만이 디지털 전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확대가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로봇자동화프로세스(RPA)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 37건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 26건 등의 순이다.

대상회사 108개사 중 63개사가 디지털 전담 조직을 설치하고, 평균 56.4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이 중 36개사는 디지털 전담조직의 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했다.

전체의 59.3%인 64개사는 디지털 전문인력 추가 확보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은행 17개사와 카드 8개사, 보험 25개사, 증권 14개사 등은 자체 교육과정을 운영하거나 전문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디지털 분야 해외 석·박사를 채용하는가 하면 외부 인재 영입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은행·카드 권역이 보험·증권보다 전담조직의 설치 비율이 높았고, 조직 규모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는 17개 전 은행에서 총 48건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 중이다. 총 4004억8000만원, 회사당 평균 235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주요 사업은 RPA 등 내부 업무 프로세스 자동화를 비롯해 영업점 디지털화,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고도화 등이다.

카드사 역시 8개사 모두가 디지털 전환 사업에 나섰다.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420억7000만원, 평균 52억6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보험사는 78%인 32개사가 총 69건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총 1026억6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다. 회사당 평균 32억1000만원이다.

증권사는 33.3%인 14개사에서 총 29건의 디지털 전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392억7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회사당 평균 28억1000만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디지털 전환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책임있는 혁신을 지원·유도할 방침이며, 혁신금융서비스 예비 심사나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디지털 전환 및 관련 법률 리스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디지털리스크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이버 침해 방지를 위해 취약점 분석·평가, 자체보안성 심의의 적정성 등 보안실태를 점검하고, 침해사고에 대한 대응체계를 개선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구축 의무화, 전자금융이용약관 개정 등 제도적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우리銀, 삼성페이로 환전하면 환율 우대

우리 삼성페이 환전서비스

우리은행은 삼성 페이에서 365일 높은 환율 우대율로 환전 신청 가능한 '우리 삼성 페이 환전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우리 삼성 페이 환전 서비스에서 환전 가능한 통화는 주요통화(USD·EUR·JPY)를 포함해 15종이며, 환전 가능 금액은 원화기준으로 하루 최대 100만원이다.

환율우대는 원화(KRW) 지불 방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삼성 페이를 통해 우리은행 계좌에서 지불된 경우 주요통화 80%, 기타통화 40%의 환율우대가 적용되며, 가상계좌로 지불된 경우 주요통화 70%, 기타통화 30%의 환율우대가 적용된다.

외화 실물 수령은 환전 신청시 선택한 영업점에서 신청일 다음 영업일부터 가능하다. 다만, 인천 및 김포공항 영업점에서는 주요통화에 한해 신청일에 수령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서비스 출시를 기념해 오는 8월 말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삼성 페이 환전 서비스 이용시 원화 지불 방법에 관계없이 주요통화 85%, 기타통화 45%의 환율우대가 적용된다. 특히, 다음달 12일까지 주요통화 최초 1회 환전에 한해 100%의 환율우대가 적용된다.

또한 삼성 페이를 통해 우리은행 계좌 개설과 우리 체크카드 발급 신청을 한 고객에게는 무료 여행자보험이 제공되며, 발급받은 체크카드를 삼성 페이에 등록하고 이를 이용해 이벤트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결제 2회를 완료한 고객에게는 캐시백 5000원이 제공된다.

/홍민영 기자 hong93@

은행, 1분기 이자장사로 10조 벌었다

대출 증가로 전년 比 4.4% 늘어
투자지분 손실 등에 순이익 줄어

국내은행들의 올해 1분기 이자이익이 10조원을 넘어섰다. 순이자마진(NIM)은 하락했지만 그간 늘어난 대출 덕에 이자이익은 늘었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분기 중 국내은행의 당기순이익은 3조8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2% 감소했다.

이자이익은 증가하고, 수수료 관련 이익 등 비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자회사 투자지분 손실 등으로 전체 순이익은 줄었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은 10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NIM은 0.03%포인트 하락하는 등 악화됐지만 대출채권 등 운용자산이 증가하면서 지난해 2분기 이후 4개 분기 연속으로 10조원 대를 유지했다. 이자수익자산(평잔)은 지난해 1분기 2092조7000억원에서 올해 1분기 2225조9000억원으로 130조원 가량 늘었다.

〈국내은행의 이자이익 현황〉 단위: 조원, %, %p

구분	'16년	'17년	'18년	1Q	2Q	3Q	4Q	'19년 $1Q^{P}$(B)	증감(B-A)
이자이익	34.4	37.3	40.5	9.7	10.0	10.2	10.6	10.1	0.4
순이자마진	1.55	1.63	1.67	1.65	1.68	1.65	1.69	1.62	▲0.03
예대금리 차이	1.95	2.03	2.06	2.06	2.09	2.07	2.04	2.02	▲0.04
이자수익률 (대출 평균금리*)	3.26	3.23	3.43	3.34	3.42	3.45	3.48	3.51	0.17
이자비용률 (예수 평균금리**)	1.31	1.20	1.36	1.29	1.34	1.38	1.44	1.49	0.21

*대출금리: 원화대출채권 기준. **예수금리: 원화예수금 기준. /자료=금융감독원

국내은행의 비이자이익은 1조7000억원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 들어 금리하락에 채권매매·평가이익으로 유가증권 관련 이익은 증가한 반면 여타 비이자이익은 소폭 감소했다.

국내은행의 대손비용은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3% 줄었다. 신규부실은 감소했고, 일부 대손충당금도 환입됐다.

국내은행의 영업외손익은 -4000억원으로 자회사 등 투자지분 관련 손실이 발생하면서 적자로 전환했다.

1분기 중 국내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은 0.60%, 자기자본순이익률(ROE)은 7.65%로 전년 동기 각각 0.13%포인트, 1.83%포인트 하락했다. 순이익이 소폭 감소한데다 지난해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자산과 자본이 증가한 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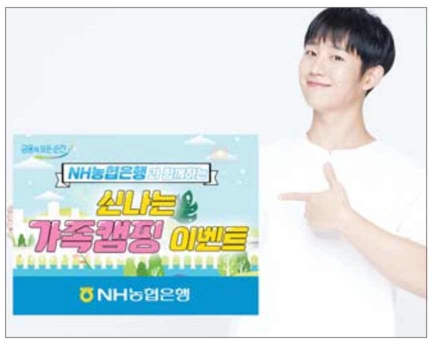
일반은행의 ROA는 0.62%, ROE는 8.40%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2%포인트, 1.51%포인트 하락했다.

특수은행의 ROA는 0.55%, ROE는 6.45%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17%포인트, 2.33%포인트 낮아졌다.

/안상미 기자

NH농협은행 "SNS 댓글달고 가족캠핑 떠나요"

추첨 통해 10팀 선발 이벤트



NH농협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12일 일정으로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골프장 내 잔디밭에서 '농협은행과 함께하는 가족캠핑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가족캠핑 참가 희망자는 오는 26일까지 농협은행 공식 페이스북 또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연을 댓글로 작성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총 10팀에게 캠핑 기회가 제공된다.

참가자에게는 캠핑 기간 동안 텐트 및 캠핑 용품 일체, 식사와 간식 등이 제공되며 팀당 최대 6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이대훈 농협은행장은 "농협은행은 SNS를 통해 고객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 더 젊고 새로워지고 있다"라며 "이번 가족캠핑 SNS 이벤트를 통해 농협은행과 고객이 평생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 로그인 '뚝딱'

'쏠 패스' 서비스 실시

신한은행은 모바일뱅킹 앱 '쏠(SOL)'을 이용해 인터넷뱅킹에도 로그인할 수 있는 '쏠(SOL)패스'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쏠패스는 쏠 이용 고객이라면 PC에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도입한 서비스다.

신한은행은 비대면채널 금융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최소화하는 흐름을 반영하는 한편, 모바일뱅킹 사용 고객이 일시적으로 인터넷뱅킹 사용을 원하는 경우 공인인증서 설치 없이 로그인할 수 있도록 고객 편의성을 한 단계 더 높였다.

신한은행은 비대면 채널 거래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해 작년 2월부터 모바일뱅킹에서 이체, 수신상품 신규 및 해지, 외화송금 등 업무 처리시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작년 12월부터는 인터넷뱅킹에도 같은 정책을 적용 중이다.

쏠패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인터넷뱅킹 로그인 화면에서 '쏠패스 로그인' 선택 ▲화면에 나오는 로그인용 'QR코드' 확인 ▲쏠에서 '쏠패스 로그인' 선택해 'QR코드' 인식 ▲공인인증서, 바이오인증(지문), 패턴 등 로그인 방식에 따라 로그인 ▲인터넷뱅킹 로그인 의 순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모바일뱅킹과 인터넷뱅킹을 연결하는 서비스가 도입돼 고객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소하게 지나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관심을 기울이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